

세계 기업도시 <1> 두바이

환상이 현실로... 세계 비즈니스 허브 우뚝

지구촌에 관광레저 기업도시 열풍이 뜨겁다. 관광레저 선진국들은 관광산업의 매력을 일찌감치 깨닫고 대대적인 개발사업에 나서 알찬 열매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남·영암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

프로젝트), 태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세계 관광레저 기업도시 점검을 중심으로 그 면모와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우리 기업도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무에서 유를= '오일달러'가 평평 쏟아지는 중동의 두바이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해변을 돌고 모래로 메워 육지로 만드는 유사 이래 최대의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가 완공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두바이는 1979년 세계 최대 인공항구인 '제벨 알리'(Jebel Ali) 항을 개항한 이래 2001년부터는 인공섬 개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팜 주메이라'(Palm Jumeirha) '팜 제벨알리'(Palm Jebel Ali) '팜 데이라'(Palm Deira)로 구성된 팜 아일랜드 개발은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주도해 주메이라 해변인 근 바다를 돌고 흙으로 메워 야자수 모양의 거대한 인공섬을 만드는 작업이다.

매립공사가 끝난 팜 주메이라(593만평)에서는 현재 인프라 및 주거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올해까지 2천실 규모의 호텔 2곳과 종합위락타운도 들어선다. 팜 주메이라 왼쪽 22km 지점에 위치한 팜 제벨알리(1천246만평) 역시 올해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대대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오는 2008년까지 개발을 마치게 돼있는 팜 데이라(2천825만평)는 현재 분양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공사를 거쳐 확보된 전체 면적은 무려 4천697만 평. 이곳에는 고급 호텔, 해상주거단지, 아파트, 마리나, 스포츠타운, 쇼핑몰이 들어서 있다. 또 두바이는 물류·

야자수 모형 인공섬 3개 개발 호텔·쇼핑몰·위락타운 조성 외국인 토지소유·송금 자유화 적극적 외자 유치 성공 발판

금융·교통의 요지로서 세계 비즈니스 허브로 우뚝섰다.

또 특이한 볼거리는 5대양 6대주를 300개의 인공섬으로 재현한 '더 월드'(The World). 한 개당 7천~2만5천평인 섬의 투자자에게는 소유권 및 개발권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다. 한반도에 해당하는 '코리아 아일랜드' 가격은 241억원으로 평가됐다.

◇바다와 물로 이룬 꿈= '부르지 알 아랍'(Burj Al Arab)은 두바이의 또다른 상징이다. 부르지 알 아랍은 해변에서 280m 떨어진 바다에 만들어진 인공섬 위에 돛단배 형태의 건물로 디자인된 '7성'(星)급 호텔이다. 높이 321m로 세계에서 가장 고층호텔인 부르지 알 아랍은 최고급 호텔 등급인 5급보다 시설과 서비스면에서 월등하다는 의미로 7성 호텔로 불린다. 하루 숙박비가 최고 750만원에 이르는 데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1만 5천평의 '위터 파크', 중동 최대의



관광리조트인 '두바이랜드'도 전 세계 관광객들을 손짓한다. 민간자본 40억 달러가 투입돼 골프장과 마리나, 7천여 채의 주거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페스티벌 시티'는 날마다 불야성을 이룬다.

◇환상을 현실로= 두바이의 '환상'은 한 지도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지난 1966년 당시 국가를 통치하고 있던 셰이크 라시드는 석유가 고갈되는 60년 후를 대비해 대규모 인공섬을 축조해 신도시 건설을 구상했다. 두바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첨단지식 산업 유치에 치중하면서 세계의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왔다. 두바이 정부는 외국인 토지소유 전면 자유화와 외환규제 및 무역장벽 철폐, 법인세를 면제하고 송금자유를 보장해 오늘날의 번영을 불러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인공섬 개발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팜 주메이라' 개발 현장.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7성급 호텔 '부르지 알 아랍'.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세무·M&A·Consulting 전문가들이 모여있습니다.

- 회계법인
- 부부장
- 백창현
- 회계사
- 양홍선
- 경영자문위원
- 최석봉
- 회계사
- 정병남
- 회계사
- 송진희
- 회계사
- 손원균
- 회계사
- 김대웅
- 회계사
- 정현석
- 회계사
- 김익주
- 회계사
- 오기석
- 회계사
- 김원기
- 회계사
- 홍상호
- 회계사
- 허명서
- 회계사
- 진현성
- 회계사
- 김창훈
- 회계사
- 안종태
- 회계사
- 인창선
- 회계사
- 김기영
- 회계사
- 김민석
- 회계사
- 나성민
- 회계사
- 류동식
- 회계사
- 박석찬
- 회계사
- 주연희
- 회계사
- 김세훈
- 회계사
- 김현화
- 회계사
- 정성훈
- 회계사
- 원김해도
- 회계사
- 원김해경
- 회계사
- 원한해경
- 회계사
- 원정윤영



Your worlds

Our people

삼일회계법인은 21세기 기업 경영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일회계법인

호/남/본/부
대표전화 : (062)239-3131
F A X : (062)224-1335
http : //www.samil.com